

비염연구팀의 강점인 3개 유관 진료과 전문의가 고른 분포와 전국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다기관 공동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첫번째로 한림의대 최정희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<한국꽃가루 알레르기환자에서 구강알레르기증후군> 다기관연구가 2016년 5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연구학

술상을 수상하였습니다. 이 다기관연구에는 전국의 총 27명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구강알레르기증후군의 유병률 및 임상양상을 파악하고 그 위험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. 그 결과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단위의 다기관대규모 임상연구자료를 구축하였으며, 이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비교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, 구강알레르기증후군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 외에도 성균관의대 홍상덕교수가 주도한 <알레르기비염 진료행태조사연구>는 우리나라 최초로 비염진료 행태에 대한 다기관연구로 그 결과를 SCI 논문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(Clin Exp Otorhinolaryngol 2017). 현재는 차의대 지혜미교수 주도로 <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에서 동물털 알레르겐 감작 및 임상양상>에 대한 다기관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

4) 논문 발표실적

가이드라인 제작 과정 중 핵심질문 발췌 과정을 영문논문으로 작성하여 순천향의대 양현종교수가 SCI 논문에 실었고 (Allergy Asthma Immunol Res, 2017), 2016년에 제작한 가이드라인을 좀 더 많은 의사 회원들의 진료에 도움을 주고자 인하의대 김영효교수가 대한의사협회지에 <임상의를 위한 알레르기비염 진료지침> 3편을 (1편 진단, 2편 내과적 치료, 3편 포괄적 치료) 출판하였습니다.

5) 알레르기비염 심포지움 개최

2017년 6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알레르기비염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. 진료현장에서 흔히 접하는 문제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연구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국내 저명한 알레르기 비염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. 심포지움은 비염팀의 다기관연구를 소개하고 비염 감별진단의 핵심, 개원의들을 위한 진료핵심 및 증례풀이 등으로 진행되었고, 특히 치료가 어려운 비염환자의 해결을 위해 다학제 협진 과정을 강의로 만든 <그 남자! 그 여자!> 시리즈는 참신한 증례풀이로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.



지금까지 저희 비염연구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연구를 시행하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, 특히 이러한 연구팀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는 학회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. 향후 저의 비염팀은 전국적인 회원망과 강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회원 상호간의 최신 진료정보 교환, 진료현장 수요를 반영한 다기관연구 및 일반인들에게 비염의 올바른 인식과 예방에 대한 홍보 등에 앞장서서, 우리나라 비염 진료와 연구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.

감사합니다. 2017년 6월 연구팀장 유 영